

나는 행복할꺼야!

만약 평화를 건설하고자 배운다면...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마태오 5,9)



목표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 중 각자가 결과에 상관없이 평화를 가져가고자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에 눈을 뜬다.



어땠나요?

처음에는 수용의 단계가 와야 한다. 여기서는 체험과 직접 겪은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나 환영을 받고 어색함 없이 마음편히 느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는 창의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에 했던 모임때 결정했던 목표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라고 다시 되물어보는 것도 좋다.



모임을 여는 활동

평화의 일곱가지 말

소요시간: 10~20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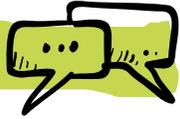
준비물: 참석자 숫자에 맞는 종이와 펜, 포스터용 종이, 매직

전개방법: 몇분 안으로 참가자들은 종이위에 평화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곱개의 단어를 적어낸다. 그 다음에 둘씩 짝을 지어 2분안으로 서로의 동의를 구하며 그 중 일곱개 단어를 선택한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생각을 바로 포기해서는 안되며, 만일 다른이의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할때 받아들여야 한다. 다음 단계는 2 짝이 다른 2 짝을 만나 그 사이에서 다시 일곱개의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체 참가자들이 두 그룹으로 될때까지 계속한다. 마지막으로 2그룹으로 남게된 참가자들은 전체 참가자들이 수공하는 평화에 대한 최종 일곱개의 단어를 추려내야 한다.

참고: 단어만 되고 문장은 제외된다. 끝에가서 그룹이 선택한 일곱개 단어는 포스터에 옮겨 적을 수 있다.

결론: 참가자들 사이의 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 유용한 질문을 준비할 수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자면:

- 다른이들과 동의를 구하기 위해선 어떤 태도가 필요했습니까?
- 이 훈련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까?
- 학교, 가족, 동네, 우리 도시에서 매일 평화의 건설자가 될 수 있는 나만의 상황을 들자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살아요

저는 농구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스포츠는 과격한 경쟁심으로 인해 일종의 전쟁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만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시합중 제가 상대하던 선수는 저 보다 등치도 크고 신체접촉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어느 순간 제 파울로 그 선수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상대편에게 다가가 일어서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다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벤치에 있던 제 코치가 제가 상대편을 도와주었다는 사실로 화를 내었습니다. 코치의 철학을 따르자면 상대 선수는 적수였기 때문에 도와주어서는 안되었습니다. 저는 상대선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코치에게도 경쟁팀이라도 선수들을 존중하면서 경기를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시합에 참가할 때마다 예수님과 경기하는 것처럼 하기로 스스로 제안했습니다. 예수님을 상대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경기하는 것입니다. (A. - 로마)



나만 행복할거야! 평화로운 건설하고자 배운다면...

아버지와 저는 매우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여러번 말다툼을 합니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젠이었는데 매우 강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고된 삶으로 받은 영향에서 현재까지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면은 우리 가족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싸울때가 많고 서로 전혀 동의점을 못찾으면 어떤 경우에는 해서는 안될 말까지 퍼붓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우리를 온 마음다해 사랑하시는 좋은 분

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 사람의 처지였다면 더 심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종종 떠올리는 것은 다른이들의 행동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것이지만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도 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늘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은 아버지를 항상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해볼 가치가 있을 여러분도 발견할 것입니다. 단지 사랑하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A - 유럽)

이십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모든것을 하실 분이십니다. 하지만 술을 드실 때는 그분 눈을 들여다 보기가 힘들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고통입니다. 저는 큰딸로서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고 모든 판단을 넘어갈 수 있는지를 깨달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번은 가족 안에 매우 심한 싸움이 있었는데, 그 다음 저는 다른사람을 결코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깊이 모르





깊이있게

사랑(애덕)을 발동시켜라



키아라 루빅, 3전 대회, 산상수훈,
1975년 6월 20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선의를 지

닌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합창했습니다. 예수님이 전세계에 선교하라고 제자들을 보냈을 때도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땅에 오셔서 원죄로 인해 끊어진 하느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건설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서로 사랑해야 함을 직접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묵은 사람에서 벗어나 새사람이 되어 하느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용서를 가져가고 불일치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사랑을 가져가

는 이는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젠들은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 사이의 평화를 바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을 열망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든 젠들 만큼의 평화의 건설자가 또 누가 있을 까요! 두 친구가 싸우고, 두 가족이 더이상 말도 주고 받지 않는다면, 젠들은 어떤 핑계를 찾아서라도 사랑이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젠들은 저의 말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마치 작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아이들이야말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깊은 사랑을 갖고 “하느님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 분명합니다. ✨

참고 : 웹사이트 <http://assistantigen3.focolare.org>에는 비디오도 있습니다.



가족이 뭉쳐있게 하라

가족의 위기에서 부모님사이에 어려움이 있을때 일치가 다시 가족 안으로 되돌아 오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티아고 (우르과이)



이상으로 부터 힘을 얻은 여러분들은 가족이 하나로 뭉쳐있도록 모든일을 시도해야 합니다.

기회가 좋을 때 아버지를 한쪽으로 불러서 그분의 좋은면에 대해 잘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장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어머니가 지닌 좋은 면에 대해서도 잘 말하세요. “그런데 엄마도 마찬가지로, 착하시고 인내심도 많고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해 주지 않으세요?”. 그 다음엔 다른 기회에 엄마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엄마, 엄마는 이렇게 착하고 인내심이 많은데 아빠도 좋은 면을 지니고 있어요. 어떤때 엄마를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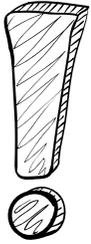
르는 것 보셨죠? 전처럼 사랑하세요. 저희는 엄마 아빠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부모님께 인내심을 잃지 말고 항상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인 여러분이 부모님을 진정으로 원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당연히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은 부모님으로 하여금 우리 모임에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을 알고 나서 다시 합쳐진 부부들과 많은 가족, 어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

키아라 루빅, 마리노 (로마),
1997년 5월 10일 - 슈퍼 3
젠대회 - n°4

만약 평화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평화를 건설하라!
가족이 뭉쳐있게 하라!



한번 시도해봅시다!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고 평화롭게 살며 위협적인 적이 존재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특수한 상황을 골라 그 안에서 평화의 건설자와 외교관이 되어 행동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몇가지 예를 들자면:

- 나와 의견 충돌을 가진 사람과 화해한다.
- 학교 반친구들 또는 또래친구들과 함께 주변에 볼 수 있는 평화를 이루는 제스처를 사진에 담아본다. 평화는 단지 꿈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현실이며 당신도 평화의 협력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릴 수 있다.

나만 평화 행동을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평화의 건설자가 돼야...



우리 어디까지 와 있나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선 매일 매일의 훈련이 필요하다. 부딪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얻은 긍정적인 변화는 메모해 두자. 다음 모임에 체험을 나눌때 도움이 될 것이다. .

어떤 상황에서 저는 평화의 건설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나요?

어떤 종류의 위기였나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한 제스처와 태도,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변화를 볼 수 있었나요?

보조자 공간



모임 후 평가하기

- ① 제안한 활동을 통해 3젠들은 진북팔단에 대해 흥미를 더 키웠습니까?
- ② 3젠들 사이에서 특별히 평화가 이루어지기 힘든 분야가 두드러져 나왔습니까?
- ③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3젠들은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결심에 흔들림이 없도록 다음 모임때까지 그들을 동반하고 지탱하는데 집중합시다.
- ④ 모임에서 다룬 주제가 결론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음 모임때 다루어야 할 부족한 점이 남아있습니까?
- ⑤ 모임 진행 중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다음번 모임을 향상시키기위해 염두해야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의 평화행동계획이야!
평화를 건설하고자 배워보면...